강형욱의 견종백과

이번에는 '꼬똥 드 툴레아' 입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모실 손님이 있는데요.

다들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.

대도서관님, 안녕하세요.

안녕하세요. 대도서관입니다.

- 이게 약간 다른 거야. 이게 쪼끔 달라. - 네네

강아지 할 때는(옆에 있을 때는)

- 박수를 우리가 안 치거든요. - 아~ 박수를 치면 안 되는군요.

- 제가 다시 소개를 해 드릴테니까 - 네

- 네 안녕하세요~ 하하하 - 이렇게 이렇게.

박수를 쳐서 제가 얘한테 신호를 보낸 거군요.

보통 우리가 이제 박수 치고 '갈까?' 요런 거 하잖아요.

- '밥 먹을까?' 그렇다 보니까 - 아 네네. 맞아요.

박수가, 반려견 세 미나하거나 방송할 때

- 박수를 하면 강아지들이 갑자기 월!월!월! - 아하~

- 그래서 반려견 세미나 같은 데서는 박수 막 안 치는군요. - 안 쳐요, 안 쳐요.

- 다시 하겠습니다. - 네

오늘 손님을 모셨는데요.

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. 요즘에 뭐 난리죠.

우리 친구들도 같이 난리라고 하는데요.

- 대도서관님, 안녕하세요. -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~ (반짝반짝)

오늘 특별한 두 친구와 같이 나왔어요.

사실 견종백과에서는 보호자님들만 모셔놓고 우리가

(속닥) 강아지 뒷담화같이... 이야기를 하는데

이야~ (오늘은) 못 할 거 같아.

- 두 친구가 나왔어요. 소개 좀 해주세요. - 저와 지금 몇 년 째

동고동락하고 있는 두 친굽니다.

아들딸이나 다름 없는 것 같아요, 이제는 진짜. 우리 꼬똥 드 툴레아.

단추와

꼬맹이

(잔잔한 컨츄리 음악)

꼬똥 드 툴레아의 '꼬똥'이

- '코튼'의 프랑스 말이거든요. - 코튼.

목화솜.

그래서 만져보시면은 완전히 얘네들이 목화솜이에요.

털이 이렇게 많은데도 털 빠짐이 적고. 그리고 얘네들이

- 헛짖음이 없대요. - 헛짖음이 없... (띵)

- 아까 엄청 짖던데요? - (당황) 아니...

아까 엄청 짖었잖아요!

제가 화장실을 갈 때만, 자기들이 딱 요구하는 게 있을 때.

뭔가 '물이 없다, 밥이 없다, 너희 어디 가니,

우리도 데려가 줘. 산책 나가는 거야? 와~ 좋아'

이럴 때만 짖고요. 그 다음에 또 방송 시작하잖아요.

촬영을 하게 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옆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

실제로 이거는 일상인 거 같아요.

제가 보통 의뢰받는 꼬똥 드 툴레아는

사회성이 많이 부족해요.

아 맞아요. 그게 단점이에요.

촬영팀이 와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쥐죽은 듯이 안 짖어요.

그러고 냄새를 딱 맡고.

그래서 저희가 다른 강아지들이랑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건지

아니면 얘네 종이 원래 그런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.

조금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게,

꼬똥 드 툴레아들이 사실은

토착견들이에요.

지역의 이름을 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을 좋아하냐면

저... 그... 속된 말로

남자들은 오래된 친구... 있잖아요

드래곤볼 친구라고 하잖아요. 우리가.

아... 맞아요. 불알친구. (깨달음)

드래곤볼 친구라고 하는데

- 바쁘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못 해요. - 문제는 제가 생방송이 끝나면

새벽 두 시, 세 시 돼요.

- 전에 하면 되잖아요! - 그 전에는

스케줄 때문에... (얼버무림)

-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! - 그러게요... 잠이 또...

제가 또 잠을 잘 자야

애들 간식도 사주고 밥도 멕이고 이러니까

-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죳! - 아니 그러니깐... (당황)

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. 우리 자식을 항상 보살펴주던

선생님을 만난 느낌...?

죄인이 된 느낌이라! (웃음)

아니 좋습니다.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.

그러면 털 관리, 지금 보니까

미용을 좀 하신 거 같은데 목욕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시나요?

1주에 한번 혹은 2주에 한번 정도

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(빵빠레 소리)

- 저도 물어봐 주세요! - 혹시 목욕을 얼마나 (많이 시키나요)?

우리 반려견들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(wow 효과음)

- 추석맞이로 한 번 하려고요. - 그러면은 얼마만에 한 번 한거에요?

솔직히 제가 보통 농담으로

- 명절에만 한다고 그래요. - 헉 진짜요? - 냄새 나면 해요.

냄새 나면 하는데 이게 두 달에 한번?

- 그래도 괜찮군요? - 괜찮아요~ -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

저도 뭐 자주 (목욕)하고 싶진 않은데

애들이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

이물질이 묻어서, 피부에 달라붙어서

무슨 발진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 없어요.

그리고 저는 하나 문제가

얘는 안 그런데, 얘가 앞발을 좀 핥아요.

그래서 인제 병원에 가 봤더니 좀...

습진 같은 게 있어서 간지러우니까 계속 그런 거 같대요.

그래서 핥지 못하게 했음 좋겠다고 하시는데

또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. 계속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.

그렇다고 또 이걸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가지고.

- 좀 그렇고... - 혹시 저 미용을 하실 때

발가락 사이 사이를 이렇게... (클리퍼로) 하는 미용인 거 아니에요?

미용을 제가 안 하니까

- 미용은 맡기거든요. - 발바닥만 살짝 볼 수 있을까요?

- 미안해~ - 단추를 보여드릴까요?

잘랐네.

아, 잘랐나요?

그래서, 습진이 나서 핥는 게 아니라

(털을) 잘라서 핥다보니 습진이 생겨요.

아 이제 알겠네요.

이게 우리 겨털 깎으면 습진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거야

-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야! - 아니 아니

아니 너무 인제 알겠어요!

- 미용할 때 무조건 발바닥 털은... - 아니 근데 그게

미용사님들의 관점에선

청결이라는게 되게 중요해서 그거를 깎아주시는데

고민이 들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

저도 반려견 애기가 있다보니까.

저는 털이 무진장 빠진다고 하는

진돗개, 웰시 코기 그리고

보더콜리. 털이 어떻게 빠지냐면

뭉텅이로 빠지나요?

이런 느낌이에요.

- 집에 들어가기 싫다... - 아 그 정도에요?

그렇다보니까 미용을 가끔씩 하는데,

제가 생각할 때 저 친구가 습진이

계속 있다고 하면 한번

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위로만 겉에만

요렇게 잘라주시라고

털 많이 빠지나요?

얘네들도 빠지긴 빠지는데 많이는 안 빠져요

그 때 한 번 단추가 털이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

지금 한 번 손 넣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해 보실래요?

뭐가 안 묻어나와요?

- 네, 안 묻어나와요. -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.

- 이 정도? 살짝 뽑혀나온 거예요. - 와 진짜 근데 목화같다

- 목화 같죠? - 진짜 솜 같네요

- 되게 얇으네 - 그리고 얘네들도 털이 살짝 날리긴 하는데

- 사실은 뭐... 막 불량할 정도가 아니라서 - 아유 이 정도면 감사하죠

얘네들은 탁 하면은 산들산들 이렇게 날리는 정도인데

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렇게 누웠다 일어나면은

누웠던 자리가 꼬여요.

예 맞아요 맞아요.

그래서 '털 관리 되게 힘들겠다' 싶었거든요.

- 잘라줘야 돼요. - 맞아요 맞아요.

그래서 털 관리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, 얘네들은.

- 마음이 아퍼~ - 되게 너무 저도 죄송한..

변종 백과 에서는 고 호자 님들 만 모셔놓고 우리가 그런 아 이야기 4 으 못하고 이빨 가리 이들 할 무렵 전에 만난 푸 준 2골 교류하면서 가기를 굉장히 좋아요 드래곤볼 친구라고 와서 뭘 들고 것 빨라서 할 답 온실 스푼 이신가요 아 이 우리곁을 깎으면 이제 쓰기가 봐요 우리 그것도 같은 거야 저도 아직도 삐 었어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 적을 수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챙 쉬면서 뭐 경치를 라던지 어떤 그런 건데 저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관절이 가 이런 문제 빼고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뭐 감기 뭐 그런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고 5 얘가 정상 얘는 그거 좀 문제가 있었는데 딱 뒤지 어렸을 수 있지만 읽어 아니 올 수도 없고 똥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4 쥬크 닦기 몇 살까지 드셨어요 그때는 대해서 내가 뜻 2쿼터 악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어린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는 먹을수 있어요 1 6개월에서 목인 8개월 까지 가 교직 실수로 장치다 어어 이게 들어갔네요 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경희 1년이 넘었는데도 인간을 먹는다는 것은 불안해 징조 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조이게 돼요 4 그래서 그런데 그건 은행간 오는 것은 사실은 뭔가 먹는걸 고치려고 하기보다 응가를 딱 먹죠 그러면 또 왜지 예 좀 크게 한 발짝 물러나서 숨을 보려고 해야지 응가 먹는 것만 딱 고치려고 하는 이게 당장은 없어지는 듯한 다시 나오고 나타나 예전에 그것때문에 서 보긴 했는데 아 지금은 바라구요 지타 예 예 친구 좀 만나고 예 1 책도 좀 잘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괜찮은 바닥에 거예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요 왜 꼬똥 붙을 해야 호평도 틀려야 와 잘 맞을 것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도트 플레어 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라 얘네 견종이 뛰어난 것도 진짜 좋아하구요 그리고 또 가봐야 아까 3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다 잘 만든다고 생각해 볼까 얘들이 찔 때 어떻게 되냐면 요 날듯이 뛴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자 그 무슨 일들이 잘 알려 줄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아 내피는 부터 하고 누구도 너무 좋아하고 또 주인의 맞춰서 이렇게 또 있을까 많이 진짜 도감 할 가치가 많이 있거든요 다 잘 맞는 것 같은 너무 사랑했나 요거 이러면 강한 산이 캐릭터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개개인이 있으며 내 그 개 개인들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고 하더라구요 아까도 응하고 싶은 사람한테 조용하게 어 활달하고 싶어서라고 등 할 때 락의 뭔갈 가르친 단하게 보다는 서로 맞추고 익숙해 진다 라는 느낌이 조금 더 맞는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도 여 애한테 진짜 아무것도 거렸어요 자 회 훈련사 써서 되게 자랑해요 아직 지금 질문 편중 100대 란 말이야 이게 아내 그래서 아니 근데 너무 놀랐던 게 해 처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화장실을 가고 돼버리고 잘 곳에 가서 자고 사람의 오면 한번 경계에서 짓지만 친해지면 또 여러 번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되고 점까지 있고 말 거든요 선한 사람 가지고 불편한 사람을 도구 년들하고 왜 내 보호자 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똑똑한 줄고 조건에 아이큐 테스트 했는데 냈고 그건 아니더라구요 예 1 아 어 아 아니야 그렇지 53 시리아 얘들이 천주교는 아닌걸로 예 재능 이 두가지가 있어요 왜 학습을 잘하는 진행 그 다음에 생존의 맞는 지능이 닿아 레터 찾기 분들의 특징은 생존 재능이 아주 높아요 앉아 를 빨리 배우지는 못하지만 엎드려 를 좀 빨리 배우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누구 무릅에 앉아야 됩니 다 아 아마 줘요 아아 없어 3 정확해요 누구한테 가야할 안식을 얻어 먹나 이것은 기똥차게 합니다 허나 거 올려도 보통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도 신교 안되요 왜 난 이런 말장난 야채 예 아니 어린 아이들을 좀 싫어하는 그려지는 그런 약간 어린 아예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같은 경우가 약간 어린아이를 요즘 들어서 약간 깔보는 느낌이 좀 트로트 있다죠 다른 사람한테 단지 있거든요 애한테 앱 왔다고 해서 애가 만약에 살짝 구멍 는 미학을 보였다 그럼 계속 먹어 가지고 음악 허걱 에지 줘요 근데 이게 먹이 미만의 그럴 거야 본격적인 느낌은 아닌데 아 뭐 계속 되있더라구요 그게 물러나 요 예 뭐야 너 지금 좀 불안해 미 거다 아 이런 의미로 예 여러 친구들이 술 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에요 예 그리고 자기보고 하는 사람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행동을 먼저 후궁 써봤어 이런 근데 그때가 없이 줘요 아 아직 얘기한다 며 예 뭐 팔찌 팔찌 어치 귀여워 변환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같은 그러면 각 때문에 그런 일로 여기까지 1 나서 4 아 뭐 그렇게 이렇게 그때 지죠 아 네 불안하면 4 특히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 딱 보면 그게 찍히는 걸 좋아할 것 같구요 4 또 내 쉬크 좋아할 거야 4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이 안 될 때는 경계를 좀 하는 것 같길래 근데 이게 터 차 캔들을 매력이고 뭐라 그럴까 나고 많지 나고 으 조우리 지기와 이런게 주고 및 있죠 내 신부들이 전 애들이 보호자가 소개시켜 준 사람을 좋아하는데 예 낯선 사람 바로 만나는 것도 \* 안돼 맞아요 제가 소개시켜 주면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일단은 앉으라고 해요 단지 해야될 거 곳곳에서 손님들한테 앉으시면 이해가 이렇게 쭉 올려서 한접시 2행정 닫고 발냄새 마차 해외 브랜드를 같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누구 드가서 안돼요 될지 넣다가 안 져요 4 그다음 에게 부대로 와서 않더라구요 4 그리고 뭔가 뭘 것일 것 같은 사람은 뱉어 가서 왔구나 4 참 신기 해보고 그저 꼬맹이는 그때 뭐예요 꼬맹이는 그 때 혼자 약간 책상 묶었습니다 라군 2기 왜냐면 예식을 우리 단추에 힘이 넣으세요 아 단추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자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 이제 보호자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뭐 사지 못하는 걸수도 아 지금도 막아요 보전 옆에 몇 단추가 향 성게가 조를 더러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단추가 다른 쪽에 가 있으면 저 친구가 한번 와서 있을까 얘는 정말 애기 때 보존 와 같이 1년을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왔었을 때는 애가 있으니까 제가 목 제 만 같이 있지 않고 적은 양 스케줄을 편이고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조를 들어가지고 최근 이를 따라가면 느낌이 더 강해요 일단 하세 당 연간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둘째 강아지를 갖고 있는 공통 쩍 인 문제가 예 첫째는 어쨌든 아내가 키워요 모래야 그런데 우리가 둘째로 드리면 이 이상하게 처치 한테 어느 정도의 양으로 막혀요 혼자 있지 않고 항상 첫째 랑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둘째 혼자 나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둘째는 첫째가 첫째가 나가면 난리가 나요 분리 서로간의 분리 불안이 좀 많죠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하고 내가 진실을 말씀 해 주셨지만 4 납득 한 거 없다 어 4 요즘 앞으로 좀 교육을 좀 하실 거야 뭐 많은 도움이 있자니 그러니까 아 여기가 앉아 밖에 보여요 1 작동 요요 방이었는데 아래로만 되겠군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 인지를 모르겠는데 대응 님이 줘 방송 하시다가 말고 이 친구들하고 산채 나은 거 봤어요 예 그때 들었는데 금지어 가 있다고 아예 가 금지어 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데 럼 드신 말씀하시는 그 단어를 말하면 은 크게 날 카운트 인구 마운팅 놓고 얘기하면 빨리 가서 빨리 나가자고 아치 줘 4 근데 그 선생의 생가 그 환생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아 아니야 그 말 안했어 발급 문 앞에서 준비하지 와 싶으니까 거야 오붓하고 꼬맹 부터 아아 난 치 악 아아아 아 위치 밖에 복도에 잠깐 나왔다 고 되니까 넘 참 만들고 계세요 집에서 이렇게 딱 누르다 꾸면서 단추 야 산책자 카터 레베 잠깐 투하 하잖아요 관심 반대야 밝게 한대요 그래서 뭐였죠 먼저 할 것 같아요 4 규 말을 하며 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약간 눈치 쳤죠 네 제가 아직 딱 이 판례의 가져와서 빡 근데 이게 정말 정말 많은 조건들이 공감 하는것에 술 주 안에 그 잠들어 아마 제가 지금 쓰고 있는게 그 거야 예 늘어났다가 타고 누르면 다시 이게 약간 주제 중에서 약간 그런 심지어 있잖아요 누르면 까지 들어 오는거 아냐 근데 이게 사람은 너무 편해요 4 맥 애들이 항상 이거를 자꾸 스프링이 있다보니까 야 이렇게 당기고 있는 어 들어서 얻을 항상 이렇게 땡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그 줄을 하며 내 쪽으로 앉아있는 강아지 보다 그 향상 요렇게 나와 반대 쪽에 무게 중심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거의 되어 맞아요 그거 내 같은경우 특히 나도 그래요 왜냐면 예민한 친구들은 뭐 더 옳지 않아요 예 이게 굉장히 도시에서 정말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이 줄 길게 하고 이렇게 있으며 4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줄에 걸려 때 걸리는 거 어 그래서 도시는 색깔도 다양하고 왜 그렇다 보니까 잘 안 보일 때가 있나봐요 그래서 내 두손으로 이렇게 추스리고 내 두손으로 이렇게 늘리고 에 하는 규제를 제일 좋아하고 내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줘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어 봐 목줄 목줄 아니고 아카드 찍었어요 내 가족들이 고 예 요렇게 이제 해서 이제 2주 a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길다 라고 느끼는 데 이 3m 정도의 줄을 쓰시죠 네 그러면 야 된다는 내가 창업한 주로 어떻게 썼지 4 이 그런 생각이 드실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많은데서 늘 적절하게 조절해서 쓰시고 예 사랑 없는 데서는 좀 느슨하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은 훨씬 더 그래 아마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을 한 사람의 도움이 돼 그래 우리 단추도 한 번 해볼까 행복한 이제 일반인들이 이거 한라 그러고는 막 짖고 달리라고 던져 평소에 이렇게 이거 하려고 하면 요 네 어 그럼 빨리 나가자고 마 그래서 푸시는 이렇게 알았는데 평소에는 계속 주거지와 아아아 얼굴 막 뭐 호흡 걸려도 더 가만히 좀 있어요 나간다고 다한다고 이래도 약해서 뭐라 로 이루어 거든요 한군데 그래요 아트웍 여행하다 이 4성 캐리어 리뽀 프랭크의 앞에서 너도 이제 밑에 내릴 때도 에 자꾸 이렇게 된거 조금 돋아요 5팩 그래도 어 도시에서는 분명히 줄을 짧게 잡아야 되게 쯤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은 3m 정도의 줄로 선택하시면 훨씬 더 좋아할 거구요 그리고 이거 줄 매일 때에도 대 어 산책하다 이렇게 하기 보다 이게 1 계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팁을 드리면 아예 줄을 매고 tv 를 보세요 아 그 양쪽으로 줄어도 제 그리고 tv 가 끝나면 뒤를 풀어주세요 왜 줄은 무조건 산책을 나가는 게 아니라 줄을 매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저희는 그걸 안에서 그런데 주로 일단 만졌다 하면 이걸 합니다 예 먹다가도 아까도 여기 올때 그랬어요 여기 올 때 그냥 여기 이런거 빛은 챙기려고 주로 자사 건드려도 이쪽으로 옮겨 같거든요 이제 먹다가 관심을 1 목적어 o 관료 돈이 요 교회에서 그거를 찾는 거에요 뭐 이렇게 높은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산책이 너무 좋은데 4 원하는 색을 잘 안하니까 4 내가 왜 있는데 봐야 되 게 마음이 아퍼 그래야 왜 너무 적어 에 제가 질 넣으며 아무거나 지사 회색을 주장하여 3rd 방황을 개 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음 아니하겠으며 한 때는 진짜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오늘 좀 강국 이현종 100 하였는데 4 이거 무슨 가요 행정 백과 가 아닐 정도로 4 너무 사주셔서 어학에 2동 진짜 아 실리 4 공감을 받은 것 같은 크로노 포만감을 느꼈고 지정 만해서 제상 아 아닙니다 도로 감동받았어요 아까는 수중에 어떤 눈물 날 뻔 했는데 아 예 애들한테 내가 좀 약간 좀 더 간 많이 신경 안 쓰더라도 적절하게 만 신경 숨쉬며 얘들이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삶을 살 텐데 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야 될 때 확실하게 신경써주고 나도 실패시 고 픔 이렇게 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고 감상 해야겠죠 그래 일단 단체 하고 구멍이 때문에 에 우리 대단히 너 만나고 놓은 영광의 그야말로 당 하구요 그럼 제일 늦게 임도 보이게 되요 이렇게 또 풀러 손까지 만든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음식에 대해 쪼는 개강 영웅 이 게임의 액체가 계획 어가 아 그리고 꼭 사서 솔루션 땅이 자구요 아래 웨어 아 머 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줘 마무리를 좀 하고 싶네요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 엄호 드셔 스피커를 한번 켜 볼까요 그리고 줘 만약에 이어폰을 끼시는 분들은 제어 이어폰 그거 좀 해 줘 보세요 들어 들리게 좀 닿기 셨나요 자 우리 아까 우리 하지 못한 말이죠 왜 누나 4 우리 한식 1세가 아까 1 색깔 까 선택할까 1차 갈까 은채 깎아 단체 날 헛헛 여러분 끝났어요 이제 빨리 나빠 얘기가 끝나고 냄새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나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